

새로운 번역에 대한 제안

-번역 도구 활용, 새로운 편집, 새로운 번역-

민영진*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새로운 번역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1) 번역 도구 활용과 기술 지원이다.

최근까지 발전된 번역 도구들을 번역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새 번역이 온라인에서 제공될 것을 대비한 편집 형태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어떻게 적절한 기술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구상해 본다.

(2) 새로운 번역에서 많은 참고 자료를 온라인에서 제공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3) 대화체의 높임법을 현실에 맞추어 번역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예수의 말에 높임법을 적절하게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 동안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3) 등이 나오면서 모세의 설교와 사도들의 서간에 높임말을 써 본 예가 있다. 『공동번역 신약』(1971) 초판에서는 우리말 번역 역사에서 예수의 말을 높임말로 번역했었던 시도도 있었다. 비록 『공동번역 개정판』(1977)에서 이런 시도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실에 맞는 어법으로 재조정할 필요를 느낀다.

1. 다매체 시대를 위한 성경

1.1. 말씀 유통의 새 매체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뉴스를 접하는가? 언론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이들은 뉴스 소비자들에게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소식을 전하는가? 소셜 네

* 전 대한성서공회 총무, 현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구약학.

트위크 서비스(SNS) 역시 다매체 시대에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주요 통로가 되어 가고 있다. SNS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뉴스 지형도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뉴스 유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전통 매체들의 위상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대신에 소셜 미디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변에서 흔하게 듣고 있다. SNS가 사용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인맥 확대를 통해 사회적 관계 생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서 『성경』을 연다. 영어 번역 29종, 독일어 번역 8종, 프랑스어 역본 8종이 뜬다. 중국어 역본 4종, 일본어 역본 2종, 우리말 번역도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공동번역』(개정), 『표준새번역』 등이 뜬다. 번역들 중에서는 읽어주기까지 하는 번역도 있다. 개중에는 <NET 바이블> 같은 것은 6만 5천여 개의 각주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자료를 구매하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성경 소프트웨어들이 손바닥 위에 금방 올라온다. <LOGOS 바이블> 같은 것은 이용권 구매자에게 수천 권의 성경 관련 자료가 보관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마음껏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목상을 메모할 수 있는 노트도 제공하고, 실시간 성경 읽기에 참여하여 질의하고 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마당도 제공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성경에 관한 정보를 나누면서 성경을 함께 읽고 명상하고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관계를 확대해 가게 하는 마당도 제공한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아이폰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SNS의 이용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 수는 이미 2011년에 1천만 명을 돌파했다¹⁾. 이 분야에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는 중심에서 있는 성경 번역기관들²⁾이 다매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오늘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매체로 성경의 뉴스(복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성경 공급자인 성서공회가 소비자인 독자에게 “말씀”을 공급함에 있어서, 번역 자체의 새로움뿐 아니라, 정보 유통이 혁신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말씀 유통”에서 인쇄 매체

1) “국내 트위터·페북 이용자 1천만 돌파”, 《머니투데이》, 2012년 1월 18일 작성.

2) 2011년 현재, 540개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세계성서교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를 비롯하여, 1,525개 번역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하계언어연구소(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와 위클리프 번역자회(Wycliffe Translators), 58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성서번역연구소(Institution of Bible Translation), 22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루터성서번역자회(Lutheran Bible Translators), 22개 번역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개척성서번역자회(Pioneer Bible Translators) 등.

를 통한 전통적인 공급 방법에만 머물지 않고, 다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1.2. 지배적 번역은 없다

성경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번역 환경이 발달한 오늘날은 어느 번역이 나오든지 그것이 기존의 모든 번역을 제치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여러 번역 중 하나가 되어 독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독자의 성경 사용을 위한 장치를 계속하여 발전시키는 그러한 번역만이 살아남는다. 독자들 역시 어느 한 번역을 배타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 번역을 활용하면서 성경 본문이 지닌 의미를 더욱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매체 시대의 특징이다. 통신 기기나 통신 방법의 급속한 변화와, 이용자의 선택 경향이 이런 것을 충분히 암시한다. 이런 경향에 대비하여 특히 “각주”를 “열린 형태”로 둘 수 있다.

2. 번역 환경의 변화

2.1. 개발된 여러 종류의 바이블 소프트웨어

번역 환경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편리해졌고 안전하게 되었다. 번역자 혼자서 번역 작업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번역이었다. 번역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20세기의 번역 사업은 주로 번역위원회와 번역 팀의 형태를 취했다. 성서학을 전공한 이들이 번역을 분담하여 번역하고 서로 교환하여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장을 다듬고 토의를 거쳐 번역 본문을 확정하고, 그것은 다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원고가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번역자의 테이블은 언제나 넓어야 했다. 원문 성경과 사전 말고도 여러 역본들을 펴놓고 참조할 수 있어야 했고, 주석들이 번역자의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번역은 번역자 자신의 해박한 지식이나 그의 연구에 크게 의존했다. 이제 성경 번역자에게는 번역 작업을 위한 넓은 테이블은 필요 없다. 노트북 하나를 엮어놓을 공간이면 넉넉하다. 데스크탑을 몇 개씩 놓고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볼 필요도 없게 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PARATEX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번역과

편집과 출판이 그 안에서 다 끝난다. 파라텍스트 안에는 번역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장치가 넉넉하게 들어 있다. 필요한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많은 자료와 사용 장치를 가지고 있는 <LOGOS 바이블>과 링크가 가능하다. 바이블 소프트웨어 안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성경 원문과 고대역 본문이 들어 있다. 원문 해설이 제공된다. 원문 사전들이 주석들과 함께 제공된다. 성경 본문 이해를 돕는 성서학 관련 저서들이 들어 있다. 번역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번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협조할 수 있고 최종 번역 본문을 확정하기까지의 절차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놀랄 만큼 정교하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조판이 이 안에서 다 끝난다. 번역자와 출판 담당자와 기술 지원팀이 동시에 이 작업에 참여한다. 특히 인쇄된 번역만이 아니라 온라인 편집에서는 <NET 바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6만 5천여 개의 각주를 첨가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비록 PARATEXT와 링크가 되어 있지는 않아도 별도로 BibleWorks를 장착하면 한 화면에서 수십 종류의 번역 비교도 가능하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 본문의 어형분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2.2. 활용할 수 있는 원문 이해의 결산

구약과 신약의 경우 지난 세기까지 원문 연구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두고두고 더 논의가 되고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서 번역을 위한 원문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었고 번역자를 위한 안내서도 번역자가 다 참고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한 편이다.

1) 원문 사본들 사이의 이독(異讀)을 놓고서 번역자 자신이 본문비평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도할 필요는 없다. 권위를 인정받고 검증된 대표적 번역들이 결정한 본문을 그대로 따라도 큰 탈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사본들 사이의 이독은 역주(譯註)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

2)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의미가 불확실한 낱말이나 본문도 거의 정리가 끝났다. 번역자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독자적인 개별 연구는 따로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번역자 자신이 이 난해구를 해결하려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두고 세월 붙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역시 번역 팀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대표적인 참고 번역들을 보면서 적절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같은 원문이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될 수 있을 때 본문

결정을 놓고 장시간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 택일하여 하나는 본문에,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 다른 번역은 각주를 활용하여 제시하면 된다.

4) 원문을 번역에 그대로 음역하여 실었을 경우가 있다(예: “임마누엘”). 번역판에 따라 음역만 제시하거나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이 있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 수가 적지 않다. 이것 역시 이미 대표적인 참고 번역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음역하였을 경우 그 뜻을 밝히는 정도 역시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다. 새로운 번역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5) 어희(語戲) 설명은 본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구약성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어 독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각주에서 어희가 성립되는 까닭을 분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어희에 해당하는 본문도 정리가 끝났다. 대표적인 참고 번역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6)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배경 설명은 지도와 사진(혹은 그림) 자료 첨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 번역 작업 착수와 함께 온라인 편집에서 독자가 활용할 성서 지역 관련 지도책과 고고학적 발굴물, 성서의 물건들이 제시된 자료 선택이 일찍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상 1)부터 6)까지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참고 번역을 조회하면 된다.

3. 독자의 다양한 요청에 응답하는 인터넷 편집

독자의 요구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본다. 장 절 표시가 있는 것이 싫은 독자들이 있다. 본래 성경 본문에는 장 절 표시가 없었다. 독자의 독서를 효과적이 되도록 하려고, 독자의 독서를 도우려고, 편집 과정에 장 표시를 하기도 하고, 절 표시도 하고, 문단도 나누고, 문단에 소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번역 본문에서 못다 번역한 것은 난외의 각주를 만들어 거기에서 더 설명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스테디 바이블이라는 것이 생겨 각주에 스테디 노트를 달아서 성경을 읽는 독자가 혼자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 모든 장치와 내용이 싫은 독자도 있다. 절 표시가 있고, 심지어는 성경 본문이 문단별로 편집되지 않고 절별로 매 절이 독립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내용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불평하는 독자들도 있다. 그러한 독자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그 본문에서 두세 번의 클릭 절차를 거쳐 간단히 그러한 절 표시를 감출 수 있다. 원하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심지어 장 표시마저도 독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장 표시도 감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지로 소제목이 내용 파악을 오도한다 생각하는 이들은 그것마저 한두 번의 클릭으로 감추거나 회복할 수 있다. 본문 안에 복잡하게 들어 있는 각주 부호나 난외의 각주가 성경 읽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들 역시 한두 번의 클릭으로 간단히 감출 수 있고, 필요할 때 회복할 수 있다. 독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본문을 편집하여 본문을 읽을 수 있다.

4. 독자의 다양한 요청에 응답하는 바이블 소프트웨어³⁾

새로운 번역이 <LOGOS 바이블>과 같은 바이블 소프트웨어의 형식으로 제공되거나, 혹은 기존의 <바이블웍스(BibleWorks)>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편입될 경우, 원문과 번역문 짝짓기 장치를 해 주면, 번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배려에 따라 번역을 공급받는 번역 사용자는 더 다양한 편집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성경 원어와 번역본을 가지고 행간번역(行間翻譯 Interlinear Translation)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말 번역이 원문의 어떤 단어를 번역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의 어형(morphology) 분석은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신약의 경우는 BGM⁴⁾, 구약의 경우는 WTM⁵⁾을 활용하면 된다.

5. 독자의 다양한 요청에 응하는 각주

각주는 분량 내용 성격에 있어서, 분량은 <NET 바이블>이나 『기초성경』(BasisBibel)과 같은 정도로 넉넉하게 하면 될 것이다. 내용은 <NET 바이블>과 『기초성경』(BasisBibel)이 취급한 것을 포함하여 한국어 기존 번역에서 시도된 여러 번역과 한국 토착용어의 해설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의 성격은 수시로 개정되는 “열린 편집”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경우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구역』 『개역』 『개역개정판』으로 이어지는 100년의 우리말 번역 성경은

3) 상세한 논의는 장을 달리하여 별도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4) BGM - 이것은 BNM과 BLM을 합친 데이터베이스다. Copyright ©1999-2001 BibleWorks LLC. BNM - BibleWorks Greek New Testament Morphology. The BNM and the BLM use the same coding scheme and lemma spellings, facilitating GNT and LXX comparative studies. Copyright ©1999-2001 BibleWorks, LLC. BLM - BibleWorks LXX/OG Morphology and Lemma Database (BLM), 1999-2001 Edition.

5) BibleWorks8에서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난외주(欄外註)’를 가지고 있었다.⁶⁾ 이 전통은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쇄 매체인 책에 붙이는 난외주는 말 그대로 본문의 난외(欄外) 하단(下段)의 그 좁은 여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분량이다. 아마 온라인 편집에서 각주를 “열린 각주”로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NET 바이블>도 『기초성경』(BasisBibel)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각주의 내용과 분량과 성격에서 기존의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5.1. 분량

처음부터 온라인 편집을 구상하고 번역을 한다면, 무려 65,000 곳의 각주를 가지고 있는 <NET 바이블>과, 역시 풍부한 각주를 제시한 『기초성경』(BasisBibel)이 모델이 될 수 있다.

5.2. 분류

<NET바이블>과 『기초성경』(BasisBibel)이 보여준 일반적 경향을 충분히 참고한다. 각주는 1) 역주(譯註) (translator’s note), 2) 연구 노트 (study note), 3) 본문비평 (textual criticism)으로 분류되고, 이 세 경우에 모두, 1882년 이래 최근까지의 대한성서공회가 번역 출판한 기존 번역에서 시도된 여러 번역과의 비교가 제시된다.⁷⁾ 차용(借用)되는 유불선(儒佛仙) 및 민간신앙에서 사용되는 토착용어는 거의 모두 지적이 되고 해설이 첨가되어야 한다. 이미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태 지역에서 시도된 <불교권해설성경>과 <모슬렘권해설성경>의 번역과 각주를 참고할 수 있다.

5.3. 성격

지속적으로 편집이 계속되는 열린 각주 방식을 취한다. 주장 근거만 정확하면 누구나 참여하여 첨가, 삭제, 변경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편집에 참여할

6) 난외주의 성격에 관해서는 민영진, 『國譯聖書研究』(성광문화사, 1984), 34-44 쪽

7) 이것을 위해서는 대한성서공회가 먼저, 이만열 옥성득 저, 『대한성서공회사 II』(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683-690의 “한국어성경서지목록 I (1882-1945)”에 제시된 성서공회 번역 성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성서공회가 이미 출시한 기존의 CD-Rom 성경에 이것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1900년, 1904년, 1906년 신약과 1911년의 구약을 보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펜워크 역 『신약전서』(1919), 기일 이원모 공역 『新譯新舊約全書』(1925)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를 참고한다.

6. 새로운 번역의 새 시도

여기에서는 “높임말” 사용의 필요성, 특히 예수의 경우에 높임말 사용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화체의 현실화를 새 번역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6.1. 예수의 말을 높임말로

우리말 성서 번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한 번 있었다.⁸⁾ 『공동번역 신약성서』(1971) 초판이었다. 1977년 개정판에서 예수의 말이 다시 반말로 바뀌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에게 높임말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역사적 예수, 참 사람이신 예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공동번역 신약성서』 초판에서는 예수의 높임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심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청중을 향한 말일 경우라 하더라도 산상 설교에서 마태 5:3-10 같은 것은 존대법과는 무관한 시(詩)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청중을 향한 권면은 높임말로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13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을 가지고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입니다. 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 (마태 5:14-14)

『개역』 전통에서 예수가 사람에게 높임말을 쓴 경우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꾸중에 대답할 때, 성장한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두 경우뿐이다.

48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눅 2:48-49)

8) 『공동번역 신약성서』(서울: 대한성서공회, 1971)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개역』 요 19:26)

이 경우 외에는 성장한 예수는, 우리말 번역 성서, 특히 『개역』에서는, 일반 청중에게는 물론이러니와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총독에게, 모두에게 반말을 쓴다. 모두가 비현실적이다.

(청중에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개역』 마 6:17)

(바리새인들에게)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개역』 마 12:2-3)

(대제사장에게)

63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개역』 마 26:63-64)

(총독에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개역』 막 15:2)

위의 경우, 예수의 말을 높임말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중을 향해서 말할 때는 공식적 형식인 “합니다” 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번역이 예수의 말을 높임말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1971년 초판 『공동번역 신약성서』에서 시도된 번역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더 발전되고 현실감 있는 번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2. 재고되어야 할 번역

1) “인자”(人子) - “사람의 아들”(고딕) (생략)⁹⁾

9) 김철순, “‘인자’나 ‘사람의 아들’이냐”, 『성서한국』 8:2 (1962.4), 7-10. “인자”가 아닌 “사람의 아들”로 번역해야 할 까닭을 밝힌 글.

- 2) “여호와” - “주”(고딕) (생략)¹⁰⁾
- 3) 인명, 지명 중 일부 - 현대화 (생략)¹¹⁾
- 4) 대화체의 현실화

대화체의 현실화 문제만을 좀 더 언급한다. 다양한 관계에서 높임말의 표현도 다양해질 것이다. 몇 곳만 예를 들어 열거해 본다.

(1) 부부 사이 - 다음 두 번역을 비교해 본다. 『개역』이나 개역을 그대로 계승한 『개역개정』의 존대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려줄 것이다. 여기에 반해 『새번역』의 경우는 상세한 점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될 수는 있어도 대화를 일단은 현실적으로 재생시켜 보려 한 노력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개역개정』 창 31:4-16)

같은 내용을 『새번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4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 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5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6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렸소. 7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삷을 열 번이나 바꿔치기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탄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

10) 상세한 진술은 민영진, “‘여호와’를 ‘주(主)’로 번역함”, 『신학논단』 21 (연세대학교신과대학, 1992)을 볼 수 있다.

11)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머리말”에 상세한 진술이 있다.

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새번역』 창 31:4-16)

(2) 남녀 사이 - 룯기에 남녀의 대화가 자주 나온다. 특히 보아스와 룯의 대화를 들어보면, 봉건영주가 하인에게 하는 어투인 『개역』의 것과 서로 높임말을 쓰는 『새번역』의 것이 좋은 대조를 이룬다. 현대의 독자를 고려한다면 『새번역』의 것이 더 적절하다.(상세 진술 생략)

(3) 스승과 제자 사이 - 엘리야(선배 예언자)와 엘리사(후계자) 사이, 예레미야와 그의 비서 격이었던 바룩 사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대화 등은 친밀 정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결정이 어려울 때는 서로 높임말을 쓰면 별 탈이 없을 것이다.(상세 진술 생략)

(4) 제자들끼리 - 역시 친밀 정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하게” 체를 쓰거나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비교해 본 것이다. 『개역개정』은 평교간에 고어체 반말을 쓴 경우이고, 『새번역』은 평교간에 현대어 “하게” 체 정도를 쓴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개역개정』 요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새번역』 요 20:25)

7. 맺는 말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번역의 특징은 1)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편집이 된다는 것, 2) 온라인 편집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공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는 것, 3) 그렇게 제공된 각주는 지속적으로 편집이 계속되는 “열린 각주”라는 것, 4) SNS가 가능한 모바일로 제시된다는 것, 5) 인터넷에서도 제공되어 독자가 자유롭게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 6) 예수의 말 번역에 있어서 기존의 “반말”을 “높임말”로 번역한다는 것, 7) 기존의 특수 용어

를 재고하여 다시 번역한다는 것 등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번역자 주(translator's notes)에서는 초창기 우리말 번역도 소개되고, 기존의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 개정판』(『새번역』) 등에 나타난 번역을 함께 다루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기존 번역의 개정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차용된 토착 용어 해설은 기독교 경전이 한국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토착 문화를 만나 어떤 효과를, 혹은 모험을, 혹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지를,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토착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투고 일자: 2012. 10. 12.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